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5663.24	↓ 코스닥	662.68
	(-360.42)		(-43.17)
↓ 금리 (국고채 3년)	3.800	↓ 환율 (원·달러)	1447.35
	(-0.029)		(-15.15)



하이닉스 또 최대실적 영업익 60조 ‘AI 훈풍’

2분기 매출 79조 순익 94조 기록
영업이익률 76%, 순이익률 118%
현금성 자산 18.6조 늘어난 88조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또다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 79조 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 순이익 93조9226억원의 분기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76%, 순이익률은 118%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넘어섰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3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2320억원, 9조2129억원이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33조6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8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환금은 69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회사는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 여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메모리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모델 고도화로 메모리 경쟁력의 범위가 개별 제품을 넘어 시스템 아키텍처와 패키징까지 확대되는 만큼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공동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관점의 메모리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BM4는 올해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샘플 공급을 마친 HBM4E에는 기술 성숙도와 양산 안정성을 갖춘 공정을 적용했으며,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리더십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또 낸드 부문에서는 선단 공정 전환과 고용량·고성능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321단 제품은 이미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연말까지 국내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HBM과 AI 서버용 D램,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5.98% 하락한 5663.24
장중 12% 폭락, 5300선 내주기도

‘1만피’ (코스피 1만 포인트)를 바라던 코스피가 5.98% 폭락하며 ‘검은 수요일’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2.63% 폭락한 5262.77을 기록하며 53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하루만에 260조원이 증발했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가총액 총합은 5041조원에서 턱걸이 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는데,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5.23% 급등해 87.79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8% 넘게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0조원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13% 급락하며 한때 19만원 선을 내주기도 했다. 이후 다소 반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23%, 9.61% 하락한 20만8500원, 14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은 문자마 투매에 나서면서 1조9700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이날도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실현을 이어가며 1조2337억원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3조1603억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방어했다.

이날 코스닥 또한 6.12% 하락한 662.6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이 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8원 내린 1446.7원(오후 3시30분)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김민석 “헌직 대통령 연임 개헌 비헌실적…쟁점 키우는 것 옳지 않아”
▲與 김현정,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미 하원 의원들에 전달

/사진 뉴시스

▲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추가 대책도 미리 강구”
▲조국혁신당 “조 의장, 아니 땀 굴뚝에 연기 피우는 격…국민 의구심은 당연”

▲국회 복지위, 민주 서영석·국힘 백종헌 간사로 선임
▲정점식, 사상 초유 연이틀 양시장 서킷브레이커에 “무능·무책임 김용범 즉각 경질해야”



쪽방촌 더위 식히는 살수작업

29일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국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겼다. 경남 양산에서는 낮 한때 40.3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지난 26일 기록한 최고기온 39.3도를 3일만에 경신했다. 부산은 이날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하며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다. 밤더위까지 심해지며 올여름들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중이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서울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순찰 중 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 빚장 걸었다… 가계대출 ‘하늘의 별’

5대은행, 총량 제한·규제 지속에
대출 신용 평균 944점 ‘역대최대’
주담대 평균 951점, 4년새 42점 ↑

올해 들어 가계대출 은행 문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연체율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도 올해 상반기 신규 공급된 가계대출이 연간 관리 목표치를 뛰어 넘어 하반기에도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문턱 ‘역대 최고’

29일 은행연합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행별 신용점수의 단순평균)은 944점(KCB 기준)으로

잡계됐다. 전월의 943점보다 1점 높아져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올해 들어는 6개월 연속으로 940점을 넘겼다.

5대은행이 상반기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월간 평균은 943.9점으로, 지난해의 연간 평균인 940.8점 대비 2.9점 높아졌다. 이는 관련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신용점수제 도입 이후로도 최고 수준이다. 944.1점은 신용점수제 도입 이전에 활용됐던 신용등급제를 기준으로 1등급(942~1000점)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빠르게 높아졌다. 5대은행이 지난 6월에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담대 신용점수 평균은 951.4점으로, 2025년 6월과 비교해선 5.8점, 2024년 6월과 비교해선 15.6점 올랐다. 국내에서 신용점수 관련 공시가 최초

로 시작된 2022년 7월의 신규 주담대 신용점수 평균은 909.4점이었는데, 약 4년여 만에 대출 문턱이 42점이나 높아졌다.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 억제

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진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매년 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은행별로 대출 총량의 증가를 제한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10년대 중후반에는 통상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관리됐지만, 지난 2024년부터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기준이 엄격해졌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5%(4조3363억원)증가라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K-비만치료제, 차세대 기전 승부수

근손실 막고 장기 보호, 복용편의 개선
셀트리온·대원제약 ‘4중 작용제’ 개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을 넘어 근육 손실을 막고 대사 장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차별화된 기전과 체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4가지 수용체에 동시 작용하는 ‘4중 작용제’,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경구용 치료제’ 등이 핵심 승부수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른

면, 셀트리온은 신약개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하며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4중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CT-G32’을 확보했다.

비임상 시험에서 CT-G32는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3중 타깃 작용제 대비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근육 등 제지방 보존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안에 비임상시험기준(GLP) 독성 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2월 임상1상시험계획(IND) 제출 완료, 같은 해 2분기 내 첫 환자 투약 등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

대원제약도 팜어스바이오사이언스와 ‘DW4321’을 공동 개발하며 4중 작용제

시장 도전장을 내밀었다. DW4321은 기존 GLP-1, GIP, GCG 기전에 ‘가스트린’ 수용체 작용을 결합한 차세대 파이프라인이다. 지방 감소량 대비 근육량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한편, 체장 베타세포 복구 및 신장 SGLT2 억제라는 추가적인 기전을 규명해 대사 질환 치료제로 차별화하고 있다.

한미약품 역시 비만치료제 개발을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연구로 확장한다. 올해 첫 국산 비만 치료제 발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에페’의 경우에도, 비만약으로 출시되는 데 이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금융당국, 주택금융 정책 윤곽 대출관리 지속·실수요자 구제

금융위, 주택금융 세부내용 검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본 틀 유지
청년·신혼부부 등 예외 심사 확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금융 정책방향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



이석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 다주택자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 자원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신혼부부와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와 밀접한 영역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가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외 심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속으로 소규모 주택 지분을 보유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실수요성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AIDC 얼라이언스' 출범... 초대 민간위원장 정재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9

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이하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얼라이언스는 정부(과기정통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초대 민간 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맡고 있는 정재현 SK텔레콤(SKT) 대표가 추대됐다. /산업부

포스코, 브라질 희토류 확보

현지 개발기업 전략적 협력 나서
장인화 회장 "미래 성장동력 강화"

포스코그룹이 브라질 희토류 개발기업과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희토류 장기 구매와 지분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그랜드 하얏트 뱅가르 다홀에서 현지 희토류 개발기업 메테오릭 리소시스와 희토류 원료 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희토류 장기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상업조건 협의와 장기 구매계약 연계 지분투자, 최종 계약 체결 등 프로젝트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메테오릭 리소시스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추진 중인 칼데이라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중간재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구축 중인 분리·정제 사업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한 뒤 국내외의 주요 영구자석 제조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희토류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 생산·공급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특정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그

룹이 구축하고 있는 희토류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아우르는 통합 밸류체인과 세계 2위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브라질의 시너지지를 통해 신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동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브라질에서 확보한 원료를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과 연계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일 안베스타데이에서 산업자원과 전략자원, 에너지자원을 축으로 하는 '트리플 코어'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자원에는 철강, 전략자원에는 리튬·희토류·희귀가스, 에너지자원에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전략자원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리튬 염호와 호주 워지나·마운트마리온 리튬 광산 등에 투자해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달에는 몽골 징기스칸 국부펀드 홀딩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가계대출 연체율 급증... 심사 강화 불가피

>> 1면 '은행, 빚장 걸었다...'서 계속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집값 상승세와 주식시장 호황이 맞물리면서 투자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빚투' 수요가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4조6851억원 늘었는데, 이는 연간 관리 목표치를 약 8%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이 하반기에 대출 공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권 대출 '빚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연체액도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다.

각 은행별 고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5대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33%로 3월 말의 0.32%보다 0.01%포인트(p) 올랐다. 작년 말의 0.30%와 비교해선 6개월 만에 0.03%p 높아졌

다. 이는 지난 2016년 1분기 말의 0.36%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와 손실 흡수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은행은 부실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며, 신용점수를 비롯한 대출문턱은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중인 만큼, 은행에서는 연체 가능성이 낮은 최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상반기에 신규 공급한 가계대출 만으로도 연간 관리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하반기에도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의 모든 순간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4월과 5월 EOM 주관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MA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주안통계연보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중개투자 제외)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세율으로 설정시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B+/B-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HBM4 키우고 40조 투자… SK하이닉스, AI 메모리 굳힌다

하반기 차세대 HBM 생산 본격 확대
핵심 고객 10여곳과 장기계약 완료
HBM4E 샘플 공급·후속 개발 속도
청주 M15X·용인 팹 투자 조기 집행
AI 확산에 D램·낸드 수요 성장 전망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양산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한다. 핵심 고객과의 장기공급계약(LTA)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40조원 후반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4 생산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 장기 공급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557%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대규모 영업외이익이 반영되며 순이익은 93조9226억원에 달했다. 투자자산 매각 수익과 평가이익 63조3000억원, 외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관련 이익 1조10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2분기 순영업외이익이 6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송현중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센터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사장은 “2분기부터 HBM4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HBM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제품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4E를 상반기 중 주요 고객사에 샘플 공급했으며 기술 성숙도와 양산 안정성을 확보한 공정을 적용해 이후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 성능을 바탕으로 HBM 시장 우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메모리 시장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AI가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까지 함께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모델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개별 작업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AI 서비스 확산과 사용자 증가로 전체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인

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도 추가 메모리 공급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올해 D램 수요가 20% 중반, 낸드 수요는 10% 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첨단 공정 난이도와 신규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급 불균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객과의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추가 고객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계약이 단순 물량 공급을 넘어 고객 기술 로드맵에 맞춘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과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계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무적 장치도 함께 반영해 공급 안정성과 투자 효

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규모를 40조원 후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청주 M15X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2027년초 용인 1기 팹 클린룸 가동 이후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 패키징 공장 P&T7과 낸드 생산기지 M17,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고객 수요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사장은 “향후 실제 팹 건설과 장비 투입, 생산능력 확대는 고객 수요의 가시성과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공급 대응력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최대 실적에도 반도체주 추락 삼성·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두 회사 시총 한 달 새 1519조 감소
AI 투자 지속성·메모리 수요 우려
중국 노광기 국산화에 투자심리 위축
증권가 “급락은 심리적 요인이 커”

1519조원. 지난 한달 새 증시 폭락으로 증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며 국내 대장주인 두 회사의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29일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33.3% 하향 조정했다. 투자이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업종 전반의 평가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 배수를 낮췄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가능성에 따른 주가 조정은 일단락됐지만 중국의 노광기 국산화가 이슈가 이어졌다”며 “업계 전반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불가피해 목표주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목표가 하향이 실적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2028년까지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목표 배수만 하향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SK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철회했던 BNK투자증권도 이날 목표주가를 185만원에서 148

만원으로 추가 하향하며 눈높이를 더 낮췄다.

앞서 키움증권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유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그동안 주당순이익(EPS) 성장에 기반해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EPS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메모리 산업의 변화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품 업체들이 메모리 추가 구매에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CPU), 기판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PC와 스마트폰 판매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를 웃돌 가능성은 낮고, 3분기 EPS 역시 현재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주가급락이 실적보다 투자심리 악화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3.7배와 3.8배까지 떨어졌으며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2027년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장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면서도 “최근 주가 급락은 펀더멘털보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자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MTS

가비마블
KB마블

가비마블
KB마블

투자실력부터 자산성장까지
시작은, KB마블로부터!

매일 아침 1분 정보
오늘의 콕

전문가의 투자 전략
PRIME CLUB

한 눈에 보는 ETF 흐름
ETF 인사이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77호(2026.05.14~2027.05.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주식거래 시 수수료 (비대면계좌)는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AI 네이티브 승부수 던졌다… ‘보안 리더십’ 시험대

CEO 와칭

정재현 SKT 대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정재현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AI 인프라부터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AI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객 데이터와 기업용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 고객 대상 AI 서비스 ‘에이닷(A.)’, 자체 LLM ‘AX K’ 시리즈, 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AI 풀스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 고객과 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통신사를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에이닷을 통해 일정 관리와 통화 요약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 시장에서는 제조·국방·바이오 등 산업 현장을 겨냥한 AX K2를 앞세워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난해 AIDC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K하이퍼를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을 통합하며 투자 기반도 강화했다.

AI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이 모델 성능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방과 공공, 기업용 AI 시장은 폐쇄망과 분리망 환경 등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보안 역량이 곧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AI 풀스택의 성패 가를 ‘보안 리더십’

정 대표는 AI 사업 확대와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이후 에이닷 전화 기능에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도입했다.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지하면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AI 기술을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보안 영역에도 적극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 AI 분야에서도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에 참여해 LLM 취약점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X K2 역시 산업 현장 적용에 앞서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과 사후 학습을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정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정보보호 체계다. 내부망이라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와 기기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AI 시대 보안 환경에 맞춘 새로운 보호 체계다. 영업전산과 회선관리, 과금 시스템은 물론 고객 데이터와 클라우드, AI 플랫폼 전반에 제로트러스트를 확대 적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도 공격적으로 늘린다. SK텔레콤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7000억원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하고, 대표이사 직속 통합보안센터와 독립적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보고 체계를 구축해 최

에이닷·자체 LLM ‘AX K’부터 AIDC 중심 AI 풀스택 체계 구축
개인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확대
제조·국방·바이오 산업 공략도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도입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LLM 취약점 대응 체계 고도화
제로트러스트 정보보호 강조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 투자
최고경영진 보안 거버넌스 강화

AWS·오픈 AI 등과 협력 확대
SK그룹 반도체 사업 등도 결합
조직구조 정비, CIC 체계 도입



/따음AI



정재현 SKT 대표



① SKT 을지로 사옥. ②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 케이투. ③ SKT가 ‘해인’ 클러스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취득했다. /SKT

고경영진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사업이 확대될수록 보안 사고가 곧 기업 신뢰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올해 MWC 2026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AI 역량이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업을 더해 대한민국 고객과 기업의 AI 네이티브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네트워크에만 머물지 않는다.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느냐가 기업 신뢰를 결정하는 시대다. AI 네이티브 기업을 선언한 SK텔레콤의 다음 경쟁력은 AI 성능이 아니라 보안이며, 이를 최고경영자의 책임으로 끌어올린 정재현 대표의 리더십이 향후 AI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AI 전환 가속…신뢰 회복이 관건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 역할을 넘어 AI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의 전략은 AI 데이터센터와 거대언어모델, 고객·기업용 AI 서비스 등 ‘AI 풀스택’을 통해 AI 사업의 수익 기반을 넓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정재현 사장은 취임 직후 SK AI 서밋 무대에서 AI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이 국내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고, 한국의 AI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도.

를 위해 자체 역량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기술 기업 및 SK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AWS, 오픈AI 등과의 협력 확대가 주목된다.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국내 고객과 산업 현장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다. SK그룹의 반도체, 에너지, 제조 등 사업 기반과 결합할 경우 기업용 AI 전환(AX) 사업에서도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은 이런 AI 인프라와 산업 특화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는 무대로 거론된다.

조직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와 통신 사업을 각각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CIC 체계를 도입해, 기존 통신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AI 사업에는 보다 빠른 투자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있다. AI 사업의 속도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성패는 기술 투자 못지않게 고객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정보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AI 사업 확대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민감한 경영 과제가 됐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고객 데이터와 기업 정보가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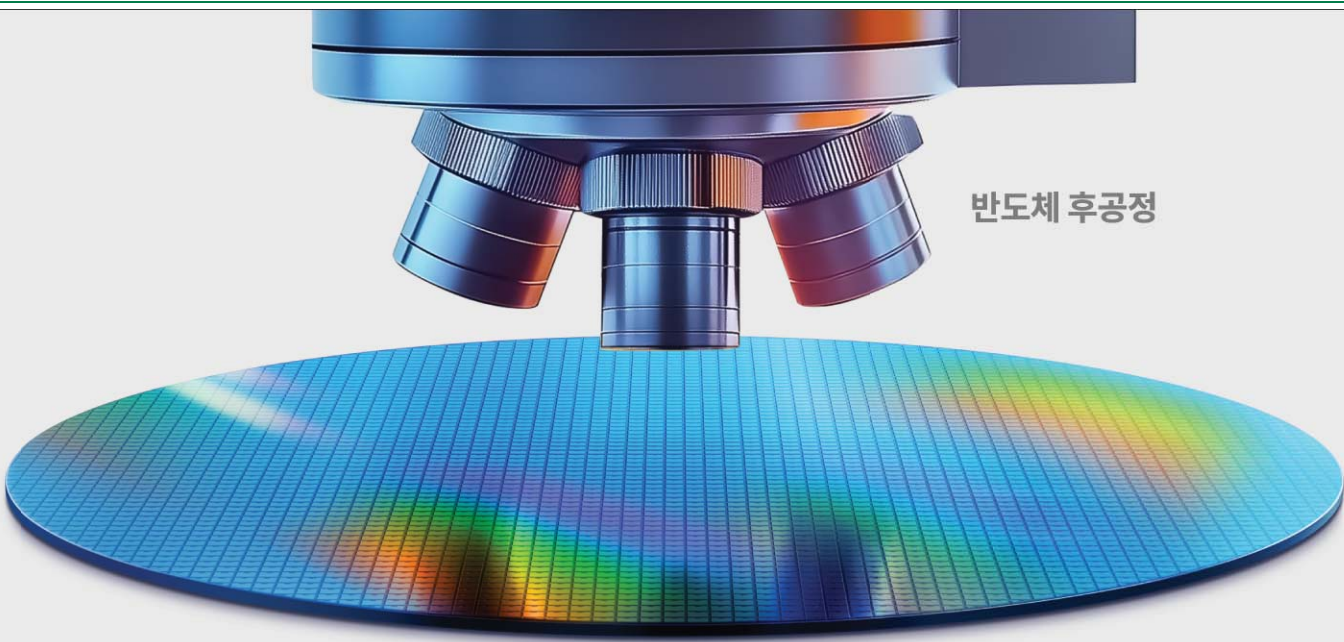
정 사장은 고객 신뢰를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의 AI 전환은 화려한 기술 발표나 협력 확대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통신 품질, 기업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정재현 사장이 AI 성장 전략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느냐가 SK텔레콤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두산테스나



반도체 후공정

HELLO [ADVANCED]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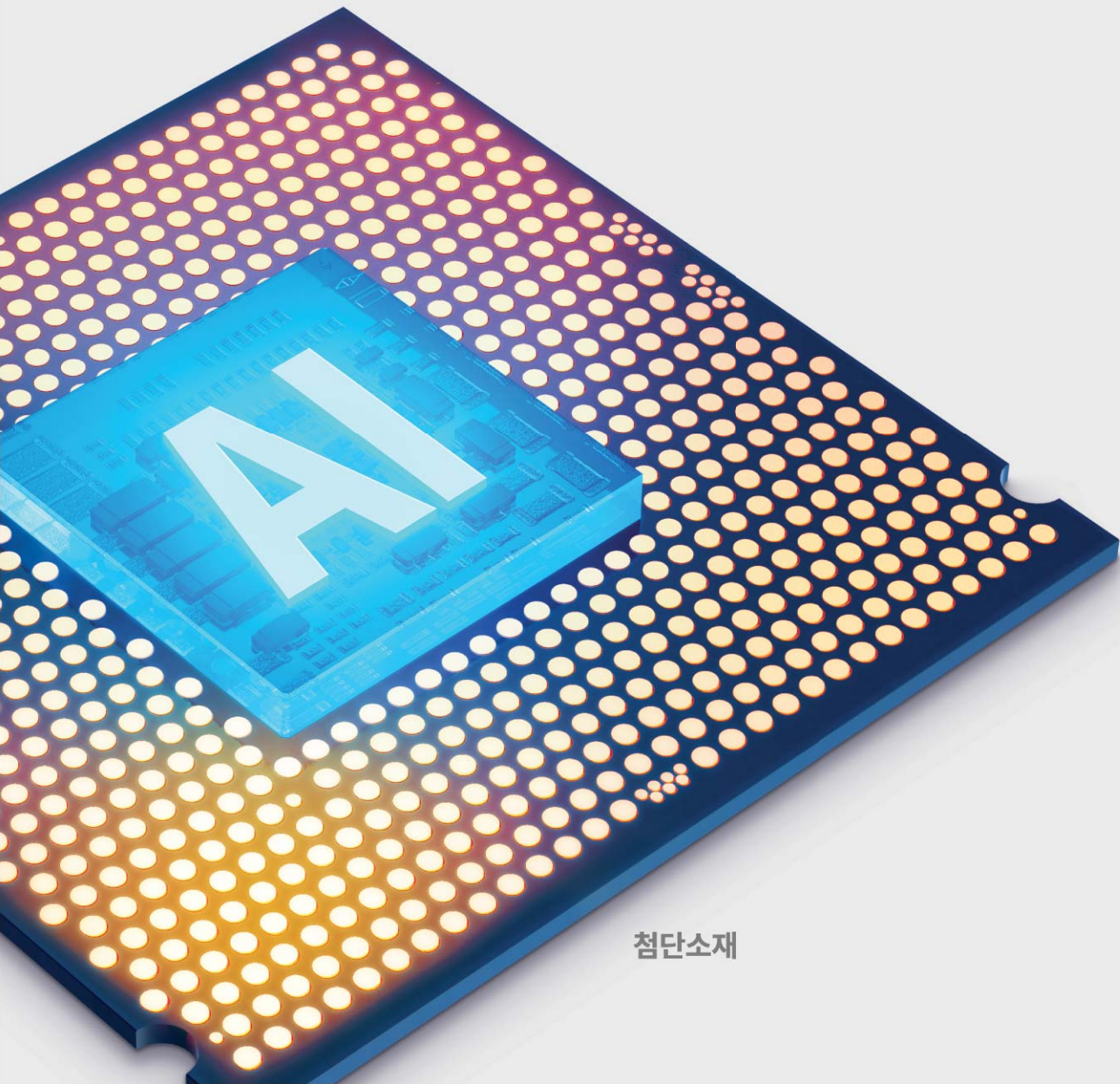
우리가만드는건

기술의 혁신을 넘은, 미래 산업의 가능성입니다.

두산은 첨단소재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AI 시대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첨단 기술의 한계가 없는 내일, 두산이 만들어 갑니다.



첨단소재



DOOSAN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 후폭풍… 與野 개헌론 놓고 충돌

(국회의장)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진화
국힘 “李 장기집권 시도” 공세
여권 “헌법상 불가능” 선 긋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의장이 29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권은 여전히 공세를 펼쳤다.

◆ 장동혁 “李 장기 집권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의장이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급기야 어제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꾀잡아냈다”며 “이 대통령이 장기집권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개헌 때 포함할 것인가”라며 “헌행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사전인수격 조건까

지 갖다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1년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4년은 더 까마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연임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후안무치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6선)도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국헌 문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단순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宋 “동의 얻기 어려워”·鄭 “기자에게 낯인 듯”… 靑 “이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도 조 의장의 발언에 우려 섞인 지적을 내놨다.

송영길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 연장과 관련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

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 역시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낯인 것 같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 의장이) 디테일(세부 사항)에 약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은 순방 중이고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민항기·희토류·수소… 韓·브라질 경제동맹 강화

李,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양국 기업 간 총 7건 MOU 체결

브라질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기업인들과 만나 양국 경제 교류와 관련해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까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브라질과 그린수소 생산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 기업 간 총 7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 참석해 “이미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 경제의 심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 내외 수준인 점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향후 양

국 간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근본적 대책으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협정 논의를 가속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국가 간 산업과 경제 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제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며 전담 라인을 지정해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에 대한 후

속조치로 양국이 각각 상대국 진출기업·진출 희망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최고위층 인사를 양국의 경제협력 전담인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라질에서는 행정부 2인자인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이 맡는다. 향후 양국은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재개, 방산, 우주항공, 핵심광물 및 희토류 등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주요 협력의제의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렸으며,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집결했다. 기업인들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과 브라질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시대적인 파트너라면서 “이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브라질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트럭 도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브라질과 협력하면서, 희토류를 공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 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해 양국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LG전자는 지난 30여년 간 브라질에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면서 제조업 디지털-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중남미 지역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양국 기업 간 총 7건의 MOU가 체결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엠브라에르와 민항기·항공우주 분야 협력 MOU를, SK바이오팜은 유로파마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메테오리소시스와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MOU를 맺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민간 분야 기업들 간 MOU는 양국 간 협력이 바이오, 우주항공,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용범 “주가 변동성, 구조적인 요인”

(靑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 책임론 일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코스피 급락의 원인을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성향도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대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적 요인들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의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아직은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확신이 덜하다”면서 “실제 수요나 AI 쓰임새 이런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의 성장도 주가 급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정책실장은 “중국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해당 사업을 반드시 키워내려고 할 것이고, 제조기술 등의 측면에서도 약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개인투자자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투자하며, 관련 파생상품이 많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룰라 일했던 노조 사무실 방문

“노동 존중 세상, 국경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오후 루이스 아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과거에 활동했던 상파울루 ABC 급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급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전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급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며 일정을 깜짝 공개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급속노조 본부는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급속노조 방문 이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방문 소회를 전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신한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창업 44주년

1982년, 신한은 금융보국의 뜻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롯데카드, 영업정지 수위 ‘촉각’… 내일 해킹 제재안 결정

지난해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최종심의 핵심쟁점 ‘유출 반복성’
인정편 영업정지 4.5개월 현실화
금융위서 제재안 경감 가능성도

지난해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최종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이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1일 롯데카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최종 심의한다.

앞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외부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중징계안을 의결한 뒤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롯데카드 본사 전경. /롯데카드

절차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안전소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당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유출 사고의 ‘반복성’ 여부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내부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에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약 11년 전

발생한 사고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 역대 최장기간인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도 금감원 처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성을 인정한다면 4.5개월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측은 반복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사고는 내부 직원의 일탈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였다면, 이번은 외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라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를 소명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안전소위 일정을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정례회의 일정 역시 이달 29일에서 3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를 두고 제재 수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행정 제재 불복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심 기준 금융위 행정소송 건수(신규)는 지난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85건까지 확대됐다. 최근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금융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금융위로서는 제재 적정성을 더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4.5개월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영업 차질과 매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과거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롯데카드 제재안이 경감 없이 확정될 경우 두 카드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엄격한 기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신용 줄 하향에도… 저축은행 ‘흑자 전환’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6곳
상반기 순익 합계 254억 규모
본업 경쟁력, 비용 효율화 효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본업 경쟁력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29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KB·우리·하나·농협·IBK)의 상반기 순이익 합계는 254억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1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전체 순이익이 449억원 개선되며 흑자 전환했다.

사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순익 개선세가 뚜렷하다. 하나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231억원)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43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저축은행도 -43억원에서 3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IBK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53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손실 규모가 -164억원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신한저축은행과 우리저축은행은 당기 순이익 134억원,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1억원씩 확대됐다. 다만, KB저축은행은 흑자를 냈던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주사 저축은행이 2~3차례 세 자릿수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순익 증가 배경으로는 본업 경쟁력 강화, 비용 효율화 등이 꼽힌다.

먼저, 신한저축은행은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순이익을 확대했다. 신한저축은행의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7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증가했다. 특히, 이자이익은 792억원에서 809억원으로 늘었

며, 비이자이익의 경우 지난해 -59억원에서 -5억원으로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로 순이익을 개선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당금 비용을 반 이상 줄였다. 대손충당금 비용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8% 줄었다. NH농협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75.39%였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6월 말 기준 69.67%로 축소했다.

IBK저축은행은 외형 성장으로 수익성 자산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 IB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18억원 증가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디지털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현송 총재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야”

한은, 물가·경기 점검 후 결정키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치인 2.6%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신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

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 총재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1.1%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난 5월 전망치인 2.6%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



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는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한은은 앞으로도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압력은 한층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2월 2.0%에서 6월 3.2%까지 높아졌다. 6월 근원물가는 2.5%, 생활물가는 3.4% 상승했다.

신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국민 40% 땅 보유… 60대, 소유면적 최대

국토부, 2025년 말 토지소유현황
총 소유자 2012만명 2.4%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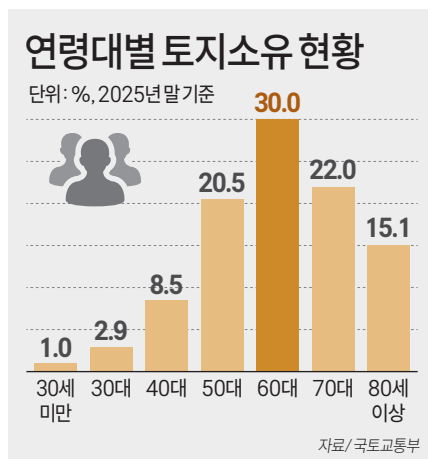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토지 소유자가 늘어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가 소유한 개인 토지 면적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토지 소유자는 201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47만명(2.4%)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 6127㎢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개인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9%였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30만가구 가운데 1565만가구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소유 가구의 비율은 전년보다 35만가구(2.3%)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전년보다 2.5% 줄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소유 면적이 1만 3860㎢(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1만141㎢로 22.0%, 50대가 9443㎢로 20.5%를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토지 소유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54.3%, 여성이 45.7%였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463㎢로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2443㎢로 가장 많았고, 지목별로는 임야가 3460㎢로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46.4%를 차지했다.

면적 규모별로 1000~5000㎡ 보유 법인이 8만7000개(23.0%)로 가장 많았으며, 가액 규모별로는 1억~5억원 보유 법인이 10만개(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중과 종교단체 등 비법인인이 소유한 토지는 7823㎢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농림지역이 4446㎢, 임야가 7228㎢로 각각 56.8%, 92.4%를 차지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우리은행, 직원 절세상품 실무 연수

고객에 전문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우리은행이 전국 26개 영업본부에서 전 직원을 위한 절세상품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직원들의 상담 역량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전국 26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본부부서의 자산관리(WM) 전문가가 각 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절세 혜택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

하우와 상담 경험을 공유하며,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절세 혜택 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재무 상황에 맞는 절세 혜택과 상품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충분한 안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DX,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 3년내 매출 30% ↑

제조현장·사무영역 AI 고도화
내부 기술 검증… 외부시장 공략
무인 공정·플랫폼 등 상용화 속도

포스코DX가 제조 현장의 피지컬 인공 지능(AI)과 사무 영역의 AI 에이전트를 양대 축으로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에 나선다. 내부에서 검증한 AI 기술을 외부 시장으로 확산해 향후 3년 내 수주와 매출을 약 30% 늘린다는 목표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AI를 업무 수행의 주체로 활용하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증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외부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센서와 제어기술, 제조실행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 제조·경영 시스템 전반을 구축·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I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숙련인력의 은퇴와 고 위험 작업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피



포스코DX는 29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략을 소개했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지컬 AI를 제시했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범용 AI보다 제조 공정에 특화된 매뉴팩처링 AI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암묵지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AI 오퍼레이터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제철소 크레인과 리프트이며, 원료하역기 등 대형 설비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숙련 작업자의 운전 노하우를 학습한 AI 오퍼레이터를 적용해

사람과 AI, 로봇이 협업하는 지능형 제조 환경을 구현한다.

조 소장은 “리클레이머와 후판 크레인, 원료하역기 무인화 기술은 현재 시운전 단계이며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아연도금 공정에는 드로스 제거 로봇을, 냉연 공정에는 디밴딩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다. 65톤급 철강제품을 이송하는 무인운반차(AGV)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로봇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도 확보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의 물류 자동화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모터코어 생산라인의 로봇 자동화 등 그룹 주요 사업장에서도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 심투리얼(Sim-to-Real)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해 산업용 로봇 사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사무 영역에서는 자체 개발한 AI 워크

포스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를 기반으로 도메인 특화 AI 직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이전티는 AI 에이전트의 생성·배포와 실행, 모델 강화·튜닝, 성능 모니터링 등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해 기업 업무를 분석·설계하는 AI 전환(AX)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축을 지원한다.

김병석 포스코DX AI워크포스TF팀장은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AI 직원”이라며 “시장은 AI 에이전트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AI 직원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현재 재무·인사·노무·프로젝트 관리 등에서 113종의 AI 직원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전체에서는 200여 개 AI 에이전트를 실증 중이다. 사전 결산 리스크 점검 업무에 적용한 결과 약 3시간 걸리던 작업 시간이 1분 안팎으로 단축됐다. 회계결산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면 생산성이 최소 30% 향상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아반떼 ‘체급 상승’ 시동… 준중형 한계 넘는다

디 올 뉴 아반떼 테크데이

8세대 완전변경 모델 핵심기술 소개
프리미엄 진화… “차급 이상 가치전달”

준중형 세단의 대명사 아반떼가 ‘저렴한 국민 첫 차’라는 오랜 수식어를 내려놓는다. 차체 강판부터 서스펜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상위 차급 기술을 대거 끌어내리며 8세대에서 체급 상승을 정면으로 선언했다.

현대자동차는 29일 서울 서초구 아크 강남에서 ‘디 올 뉴 아반떼 테크 데이’를 열고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의 핵심 기술과 개발 배경을 공개했다. ‘차급 너머의 경험(Beyond Class)’을 슬로건으로 개발 콘셉트와 디자인 등을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설명했다.

양유찬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1실 실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존 강점인 디자인과 실용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과 첨단 디지털 사양을



디 올 뉴 아반떼 현대차 연구원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더해 차급 이상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는 글로벌 탑티어 모델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차체다. 기존 대비 전장 55mm, 전폭·휠베이스 각 30mm 늘었다.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기존 52.6%에서 58.7%로 끌어올렸고, 평균 인장 강도도 718메가파스칼(MPa)로 4.7% 높여 프리미엄 대형 세단급 강성을 확보했다. 이날 트렁크 용량도 479리터(VDA 기준)

로 처음 공개됐다.

안전 사양에서는 자사 최초로 전자식 변속 레버(SBW) P단 긴급제동을 넣었다. P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가속이 제한되고 네 바퀴에 유압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는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배터리를 240V·1.32킬로와트시(kWh)에서 270V·1.49킬로와트시(kWh)로 키우고 구동모터 출력을 높여

시스템 합산 출력이 157마력으로 16마력 올랐다.

가솔린 모델도 손봤다. 파워트레인 2.0 가솔린을 기본형으로 올렸다. 최고 출력은 149마력으로 기존보다 26마력 높아졌다. 현대차 측은 “1.6터보보다 2.0가솔린이 연비 측면에서 우세하고, 그에 맞는 주행 성능도 충분히 튜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軍 ‘아미타이저 4.0’ 무인전력 확보 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을 앞세워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르면 오는 8월 방위사업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저 4.0’에 투입될 무인전력 확보를 지원한다.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8일 아리온스멧을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선정한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8월 방사청과 아리온스멧 양산 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내 UGV 플랫폼 대표 기업으로서 K9자주포와 보병전투장갑차 등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유·무인복합 체계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효성중공업

초고압변압기 6대 수주

효성중공업이 브라질 대형 수력발전소 증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중남미 전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효성중공업은 28일(현지시간) 수력·발전설비 전문기업 안드리츠 하이드로로부터 500kV 초고압변압기 6대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변압기는 브라질 파라나주에 있는 ‘포즈 두 아레이아’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프로젝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공급과 함께 자사의 스테콤과 안드리츠 하이드로의 동기조상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테콤’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원관희 기자

SK이노베이션, 베트남 에너지 사업 본격화

추형욱 대표, 현지 기업 협력방안 모색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베트남에서 단계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미국·호주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공급해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SMR)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SK이노베이션은 추형욱 대표이사(사진)가 지난 16~17일 베트남을 방문해 산업무역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



남(PVN), 발전회사 PVPower 주요 인사들과 에너지·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대표는 “차세대 SMR 기술의 검증과 상용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 PVN과 원전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韓-브라질 협력 채널 구축·가동

K-스타트업 남미 진출 지원

한국과 브라질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K-스타트업 남미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가동한다.

중기부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노용석 제1차관과 티아구 나카시오 페레이라 브라질 중소기업부 차관이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블라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체결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국과 브라질 정상외교 성과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남미 진출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벤처기업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각각인 AI 인증 하나로 묶는다… 연말 통합 검증체계 가동

AI 제품·신뢰성·안전성 통합 검증
6개 기업 대상 시범인증 진행
고영향 AI부터 공통 기준 적용
공공조달 우대·인증비 지원 검토
향후 AI 에이전트·피지컬 AI 확대

국내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검증하는 통합 검·인증 체계가 이르면 올해 말 본격 운영된다. AI기본법 시행으로 고영향 AI의 안전성 관리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이를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통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학·연이 통합 인증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도 공공조달 우대와 인증비용 지원 등을 연계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 신뢰성 얼라이언스는 이달부터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AI 안전성 통합 검·인증 체계의 시범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 통합 검증체계 이미지.

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검·인증 체계는 에너지와 교통, 교육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영향 AI’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난 21일 시행된 AI기본법은 고영향 AI 개발·이용사업자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했지만 실제 이를 검증할 공통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기업

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AI기본법 취지에 맞는 공통 신뢰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증은 많은데 기업은 외면… ‘하나의 기준’ 필요성

통합 검·인증 체계의 핵심은 기관별로 흩어진 기존 AI 인증을 하나의 평가 체계로 묶는 데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의 CA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산업AI 국제인증,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의 AI 마스터, 한국표준협회의 AI+ 등 7개 이상의 AI 관련 인증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인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 기업들은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여러 인증을 취득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크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은 대부분 ISO·IEC 등 국제표준 인증을 우선 취득하면서 국내 인증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품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부담이다.

실제 운영기관별 인증 실적도 연간 2~50여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AI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해외 사업에서는 국제 인증이 더 중요하다”며 “국내 인증은 비용 부담도 크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조달 인센티브 검토… AI 에이전트까지 확대

AI 신뢰성 얼라이언스는 통합 인증체계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달청 등과 공공조달 우대, 인증 비용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공공사업과 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증 대상도 현재 AI 제품·서비스에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경쟁력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산업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통합 인증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우대와 인증 비용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도가 안착할 경우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내 AI 안전성 관리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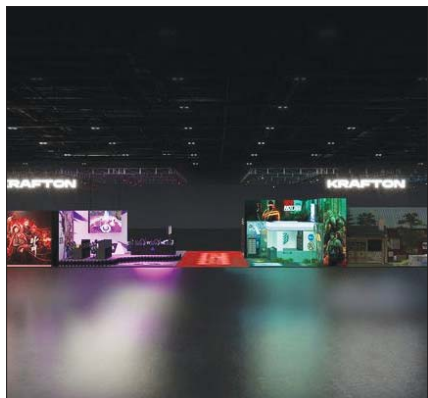
크래프톤, 게임스컴서 ‘배그 이후’ 승부수

차세대 IP 5종 글로벌 무대 공개
펍지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 첫선
차기 흥행작 가능성 가를 시험대

크래프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차세대 지식재산권(IP) 5종을 공개하며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향한 승부수를 던진다. 배틀그라운드가 여전히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차기 흥행 IP 확보를 최대 과제로 보고 있다. 이번 게임스컴이 글로벌 이용자와 투자자들에게 미래 성장성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해 ▲펍지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윈스터 ▲타래: 언바운드 등 5종의 신작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모든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각 게임의 세계관을 활용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펍지 스튜디오의 미공개 신작이다. 배틀그라운드 IP 기반 작품이라는 점 외에는 게임명과 장르, 플랫폼 등 대부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크래프톤은 게임 속 세계관을 구



크래프톤이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서 ‘프로젝트 제타’ 등 신작 5개를 공개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크래프톤

현한 체험 공간을 통해 처음으로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NO LAW’는 오픈월드 FPS 장르로 락피킹과 슈팅 썰링 등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한다. 2인 협동 어드벤처 ‘에이지 트윈스터’와 동양 판타지 액션 RPG ‘타래: 언바운드’는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 대상 시연을 진행한다.

◆실적은 ‘배그’가 견인… 시장 관심은 차기 성장동력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앞세워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에는 에스턴마틴 등 글로벌 브랜드 협업 효과

가 반영됐고, 증권가는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자회사 인노운월즈의 ‘서브노타카2’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시장조사업체 알리네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서브노타카2는 스팀에서 약 1억336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경영진 해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흥행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임스컴이 ‘다음 10년’ 가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게임스컴이 단순한 신작 발표 행사를 넘어 크래프톤의 장기 성장성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쇼인 만큼 글로벌 이용자들의 첫 반응이 향후 출시 전략과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출시 이후 크래프톤은 꾸준히 신규 IP를 확대해 왔지만, 배틀그라운드만큼의 글로벌 흥행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게임스컴에서 공개되는 신작들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 탄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빛나 기자

기가론 “AI 보안 자신해도 대응력 미흡”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보고서’
보안 침해 사고 83%에 AI 관여

인공지능(AI)이 사이버 보안의 핵심방어 수단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공격에도 적극 활용되면서 기업들의 보안 대응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상당수 기업이 AI 보안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대응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가론은 29일 발표한 ‘202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간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의 83%에 AI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등 6개국 보안·IT 의사결정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5%는 최근 1년 동안 한 차례 이상 보안 침해를 경험했고, 32%는 두 번 이상 공격을 받았다. 27%는 사고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AI 보안의 착시’로 진

단했다. 응답 기업의 64%는 자사의 AI 보안 체계가 ‘정립’ 또는 ‘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침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도구를 갖춘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AI는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94%는 AI가 사람 개입 없이 일부 보안 기능을 자동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AI를 활용한 공격도 빠르게 증가했다. 외부 AI 기반 공격이 41%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언어 모델(LLM) 대상 공격(33%), 내부 정보 유출과 미승인 AI 사용(각 30%)이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71%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I를 운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7%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미래에 암호를 해독하는 ‘하베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 공격을 우려했다. 기가론은 대응 방안으로 네트워크 전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딥 유저버빌리티’를 제시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교원그룹, 상조 납입금 여행 전환 169% ↑

상반기 전체 전환 실적도 137% 증가

교원그룹 계열 교원라이프와 교원투어의 시너지 효과가 눈에 띈다.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이를 여행상품으로 바꿔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라이프의 올해 1~6월 전환 서비스 이용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7%나 증가했다. 특히 여행 전환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9%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환 실적만으로도 2024년 연간 실적을 26%나 넘어섰고,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75%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고객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납입금을 장례 대신 여행에 활용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교원투어와의 연계를 통해 상조 회원 전용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이용 가능한 여행 상품 선택지를 확대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이 이용 증가로 이어졌다는게 회사 측 분석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여행은 전체 전환 서비스 이용 실적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헬스케어(18%), 웨딩·결혼정보(13%), 기타 서비스(5%)가 뒤를 이었다.

교원라이프의 전환 서비스 이용 실적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부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추진

광고 총량 17%서 20%로 확대
경쟁 여건 개선 시청권 침해 우려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춰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온 광고 규제를 손질해 경쟁 여건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광고 확대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방미통위는 제출된 의견과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사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현재 하루 방송시간의 17%로 제한된 광고 총량은 20%까지 늘리고, 시간대별 광고 편성 제한도 완화해 방송사가 하루 총량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광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담겼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는 중간광고 기준을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허용 횟수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PPL), 자막광고의 화면 점유 비율 역시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OTT와 기존 방송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이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OTT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광고 시간이나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조민선 기자 msjo@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IMF때 보다 낙폭 커… ‘주식 정리 vs 반등 기대’ 선택해야

6000선 무너진 코스피

#. 40대 직장인 신모씨는 “7월이 끝을 앞둔 가운데 ‘검은 화요일’ (28일)에 이어 6000선까지 무너지자 투자금 수천만원이 이를 새 날아갔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이모(34)씨는 보유 중인 SK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서킷브레이커에도 익숙해질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며 “같은 주식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중동 사태 긴장 장기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중국 반도체 성장 등 복합 요인이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어서다. ‘검은 화요일’과 ‘검은 수요일’을 연일 겪은 시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과매도’라는 언급만 할 뿐이다.

◆반도체 편중, 부메랑 됐다

29일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공지능(AI) 거품과 반도체 패닉’을 언급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다시 지리한 3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대폭락 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 같다. 절대 신용 매수 금지” 등이다. 불안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7543억원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인 2조191억원보다 63%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실탄’이 바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에탁금을 107조1994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달 4일 139조6948억원과 비교해 30조원가량 줄었다.

‘빚투’ 자금도 감소세다. 같은 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3조1940억원으로 최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360.42포인트(5.98%) 하락한 5663.24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17포인트(6.12%) 하락한 662.68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5.8원 내린 1446.7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이달 코스피 개인 순매수 日 평균 7543억… 지난달比 약 63% 줄어
美 주식, 3거래일 만에 16억弗↑

中 CXMT 상장, 반도체 자급자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영향

전문가 “공포 과도… 조정 폭 제한적
매도 vs 보유, 선택 문제 중요해져”

한 달 사이 약 4조원가량 줄었다. 다만 올해 초 28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투자자 자금 일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8일(조회일 기준)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41억7560만달러(6조1000억원)로 집계되며, 6조원을 넘었다. 지난 23일까지 순매수액은 25억3026만달러였는데, 3거래일 만에 무려 16억달러(2조3000억원)가 늘어났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미들의 불안을 자극한 주범은 ‘반도체와 AI’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

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더불어 중국이 반도체 노광장비를 ‘자급자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 기대를 밑돈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60조5426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실적 발표 전 시장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을 64조6941억 원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팔자’도 ‘셀 반도체’에 가깝다. 29일 기준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46.54%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닷친 지난 2009년 7월 23일(46.67%)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낮다. SK하이닉스 보유율은 50.85%다. 2023년 5월 19일(50.10%) 이후 3년 2개월 만에 저점에 머물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개미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저는 (국내 주식) 시장이 인공지능(AI) 혁명의 향후 항배에 대해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내 증시 상황을 평가했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과 노광 장비 제조 기술 확보, 두 가지로 인한 답시크 쇼크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증시 변동이 중심에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20~30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국내 시장의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것일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 도입된 레버리지 ETF가 도드라져 보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것 하나 때문에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유독 도드라지는 변동성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무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가 조치는 기본 예탁금을 현금 5000만원으로 높이거나 개인별 투자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레버리지·인버스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거나 변동성완화장치(VI)의 단일이 매매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코스피 월간 최대 낙폭, ‘주식 정리는 선택의 문제’

국내외 증권사들이 지지선으로 제시한 60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증권사 목표치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의문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 지수 조정국면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등 수출 경기의 둔화 시그널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정”이라며 “반도체 패닉 셀 현상은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와 수급 이슈”라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공포감도 과도하다고 봤다. 그는 “중국 반도체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반도체 업체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단기간에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며 “펀더멘털보다 수급과 각종 불확실성으로 추가 조정폭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AI 및 반도체 기업의 부상으로 서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며 주식시장이 기존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며 “직전까지 화자된 긍정적 서사와 최근 거론된 부정적 서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제부터 주식시장은 횡보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의 1차 지지선은 6000포인트, 2차 지지선은 5500포인트로 잡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해당 레벨을 터치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장중 6000선이 깨질 정도로 추세가 일그러진 상황 속에 이 제라도 매도해 주식을 정리할 것인지, 보유하며 이후 반등 기회를 노릴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과매도 심화 양상 속에 바닥 신호가 등장한 상황이고 추가 하락 자체가 상방요인으로 변하는 국면인 만큼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반등 기회를 노릴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코스피 7월 월간 낙폭은 35.19%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보다도 큰 사실상의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이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김아영 수습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씨티 “레버리지 ETF 손실 56조 추정… 하이닉스 투자만 8조”

시총 76.4조 → 27.6조로 급감
올해 11.6조 하회 가능성 전망

최근 국내 증시 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약 56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외 투자은행(IB)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하락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매수를 이어가면서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모하메드 아파바이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논평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525억달러(약 76조4000억원)에서 최근 190억달러(약 27조6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파바이 헤드는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ChatGPT로 생성된 이미지

335억달러(약 48조7000억원) 줄어든 이후에도 62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된 점을 반영해 개인투자자들의 누적 손실을 약 387억달러(약 56조3000억원)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씨티 리서치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주식 트레이딩 부문 전

락가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시장 논평이다.

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점 대비 약 170억달러(약 24조7000억원)가 줄었고, 코스피200 레버리지 상품은 105억달러(약 15조3000억원), 삼성전자 레버

리지 ETF는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씨티는 레버리지 ETF 시장이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파바이 헤드는 “레버리지 ETF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연말 이전 80억달러(약 11조6000억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락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반도체주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 23일 이후 SK하이닉스를 160억달러(약 23조3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추정 평균 매수단가는 228만원으로, 현재까지 약 57억달러(약 8조300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수분에서도 약 24억달러(약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융자잔액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 27일 기준 양대 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32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고점(38조6000억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연초 이후 늘어난 신용융자 포지션의 청산은 약 6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바이 헤드는 “개인투자자들은 아직 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코스피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피200 선물이 우선 888선까지 하락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해당 수준이 무너지면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한 적정가치인 754.6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씨티의 자산시장 거품 지표상 한국 증시는 기존 ‘버블’ 구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폭염에 얼음·생수 ‘불티’… 편의점, 한정상품·프로모션 확대

GS25 2000종 상품 할인 행사
CU ‘리얼 스무디’ 판매점 확대
세븐일레븐 오하요 디저트 선택

평년보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편의점의 얼음과 음료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동 중 간편하게 갈증을 해소하려는 수요가 편의점으로 몰리는 가운데 업계는 아이스크림과 기능성 음료, 즉석 냉음료 등을 앞세워 여름 특수 잡기에 나섰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에서 음료와 얼음 상품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6.6도, 최고기온은 30.8도, 평균상대습도는 81.4%로 나타났다. 평년과 비교하면 평균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1.9도 높았으며 평균상대습도는 1.9%p 상승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남과 경상권은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치솟으며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다. GS25의 이달 1



서울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얼음컵을 정리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얼음컵을 비롯해 여러 음료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뉴시스

일부터 28일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아이스크림 19.7%, 탄산음료 9%, 기능성 음료 8.2%, 맥주 5.2%, 얼음 5.1% 증가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25일부터 26일까지 얼음과 이온음료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각각 42.0%, 41.7% 급증했다.

CU도 같은 기간 생수 매출이 5.8%, 이온음료는 11.2%, 맥주는 13.5%, 얼음컵은 13.0% 늘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아이스크림 매출이 21%, 냉장주스는 16% 증가했다.

음료와 얼음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날씨 변화에 민감한 편의점의 업태 특성과 관련이 있다. 편의점은 이동 중 간편

하게 허기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유통업계에서도 날씨의 영향을 특히 직접적으로 받는다.

실제로 GS25가 최근 3년간 월평균 매출을 100으로 환산한 결과 7~8월 평균 매출지수는 108에 달했다. 업계는 판매량 기준 편의점 1위 상품인 얼음컵의 매출 증가가 전체 실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여름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계절 한정 상품과 프로모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GS25는 7월 한 달간 맥주와 음료를 비롯한 약 2000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샌드

위치와 빵, 냉장간편식, 즉석조리식품, 쿠키, FF간편식 등과 커피를 함께 구매하면 아이스아메리카노(L)는 1800원에서 800원에, 뜨거운 아메리카노(M)는 무료로 제공한다.

CU는 누적 판매량 50만 잔을 돌파한 ‘리얼 스무디’ 판매점을 전국 500여 곳까지 확대한다. 리얼 스무디는 고객이 전용 냉동 컵과일을 머신에 올리면 약 1분 만에 완성되는 즉석 음료다. 이와 함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아삭이고추·오이소박이·부추 비빔밥 3종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도 3월부터 이달까지 60만 잔이 판매된 스무디 시리즈의 신제품 ‘수박 스무디’를 출시했다. 이달에는 일본 오하요유업과 손잡고 ‘오하요 브릴레 밀크’도 선보였다. 오하요 브릴레 밀크는 일본 여행 필수 디저트로 꼽히는 상품으로, 세븐일레븐은 해외 수입 냉동식품의 특성상 한정된 물량을 순차적으로 들여 올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즉각 받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매출 상품 편차가 있다”면서 “이번 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얼음컵을 비롯해 여러 음료들이 높은 매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eoh@metroseoul.co.kr



서울 자치구별 라면 소비 차이… 판매순위 1위 ‘신라면’

농심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 발표
가족 구성·상권 특성 등 소비 영향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애 라면’이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성과 주거 형태, 상권 특성에 따라 라면 소비 지도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였다.

농심은 2026년 상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POS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동의 1위 ‘신라면’은 서울 대형마트 기준 15개 자치구에서 정상에 오르며 전체 판매 순위 1위를 수성했다. 이어 짜파게티, 얼큰



농심 라면 라인업.

/농심

한 너구리, 올해 1월 출시돼 돌풍을 일으킨 신제품 ‘신라면 골드’가 4위에 안착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하절기 공략 브랜드인 배홍동 시리즈(비빔면 7위, 막국수 9위)도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역별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소비 트렌드가 감지된다.

우선 가족 단위 주거지역과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는 ‘짜파게티’의 반란이 거뻐졌다. 양천구, 노원구, 성북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등 6개 자치구 대형마트에서는 짜파게티가 신라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노원구는 주말 가족 별식 수요가 반영됐고, 대학가와 업무지구가 섞인 성북·성동·용산·광진구는 2030세대 청년층의 모디슈머 레시피 수요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거점인 중구의 성적표는 단연 이색적이었다. 중구 대형마트에서는 글로벌 공략 제품인 ‘신라면 골드’와 ‘신라면 톰바’가 각각 1위와 2위를 석권했다. 명동 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K-푸드 기념품으로 익숙하면

서도 색다른 풍미를 지닌 두 제품을 장바구니에 집중적으로 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 앞 소형 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풍경은 달랐다. SSM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예외 없이 ‘신라면’이 1위를 독식했다. 일상적인 식료품을 소량·반복 구매하는 SSM의 특성상, 모험보다는 검증된 익숙함과 보편적 선호도를 찾는 장보기 소비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농심 관계자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상권, 유통 채널에 따라 소비자의 라면 선택 기준이 다채롭게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제품군으로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제일제당

비비고 시그니처 갈비만두

CJ제일제당은 바베큐 전문가인 유용욱 셰프와 손잡고 독창적인 훈연 노하우를 담은 ‘비비고 시그니처 갈비만두(사진)’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비고 시그니처 갈비만두’는 유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인 ‘비프립’에서 착안했다. 훈연 향을 강조한 섬세한 기법에 CJ제일제당의 제조 인프라를 더해 바삭한 만두피 속 부드러운 갈비 식감과 특유의 스톱키한 풍미를 살렸다.

CJ제일제당은 갈비만두를 시작으로 유 셰프만의 훈연 향을 담은 ‘스모키 닭다리 스테이크’ 등 후속 협업 제품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형지I&C, 中 주요도시 ‘예작 팝업’ 운영

중추절 수요 겨냥… 시장 진출 본격화

예작(YEZAC)이 중추절 수요를 겨냥해 본격적인 중국 진출에 나선다.

형지I&C의 프리미엄 셔츠 브랜드 예작이 오는 9월 중국 상하이 홍취안루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형지I&C는 중한기업진출지원협회와 전략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진출을 논의해왔다. 그 첫 시작으로 홍취안루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홍취안루는 상하이 민항구 홍차오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한국외식패션부터 브랜드가 몰려 있는 곳이다. 업계에서는 이곳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대로

알려져 있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되며 중국 4대 명절인 중추절의 선물 수요를 정조준했다. 예작은 비즈니스 셔츠부터 캐주얼 셔츠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이 기간 확보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과 구매 성향을 향후 중국 사업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형지I&C는 홍취안루 팝업을 시작으로 중국 주요 지역에서 차례대로 팝업스토어를 열 계획이다. 지역별 상권을 분석해 브랜드 경험을 넓히는 한편, 안정적인 현지 유통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롯데웰푸드, 지역 농특산물 구매 확대

의성군 업무협약… 상생경영 박차

롯데웰푸드가 경상북도의성군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상생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출시 20주년을 맞은 대표 육가공 브랜드 ‘의성마늘햄’을 매개로 지자체와 기업 간 동반 성장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전날 의성군청에서 허준열 푸드마케팅부문장과 최유철 의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의성 지역 농특산물 구매 지속 확대 ▲의성



28일 의성군청에서 허준열 롯데웰푸드 푸드마케팅부문장(왼쪽)과 최유철 의성군수(오른쪽)가 롯데웰푸드-의성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롯데웰푸드

마늘 활용 제품 개발 및 판매 강화에 나선다. 의성군 역시 의성마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더본코리아

빽다방 과일 스무디 2종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빽다방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스무디 신메뉴 2종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되는 메뉴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자두스무디’와 지난해 인기를 끌며 재출시된 ‘애플스무디’ 등 총 2종이다. ‘자두스무디’는 새콤달콤한 자두 본연의 진한 풍미를 살려 상쾌함을 더했으며, ‘애플스무디’는 상큼한 사과 맛과 깔끔한 끝맛이 특징이다.

해당 메뉴들은 일부 특수매장을 제외한 전국 빽다방 및 빽다방 빵연구소에서 여름 시즌 동안 한정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AI 전력수요 급증에… 29조 美 텍사스 발전소 투자 검토

산업부,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의중
6.4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전력판매로 '상업적 합리성' 부합

정부와 업계가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장기간 전력 판매 수익을 얻는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전력수요 급증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미투자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2년 내 현재의 2배 이상인 66GW~90GW급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오는 2035년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특히 인프라 개발이 가장 활발한 텍사스주의 경우, 전력망(ERCOT)에 연결을 신청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만 240여 개에 달해 심각한 전력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198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

로젝트로 가스터빈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총 6.4G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1호 투자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은 미국 현지 건설비 폭등과 고금리,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

실상 무산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는 발전소 부지와 세일가스 공급망이 이미 확보돼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빠르게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특히 이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대미투자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부지 인근에 설립 추진 중인 5GW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와 장기전력 공급 계약을 전제로, 24시간 끊임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현지에서는 전력수급 리스크가 없는 만큼 대미투자 편드는 연간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시 폴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확정돼 물꼬를 트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원전 용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로 에너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개별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정부의 수출을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편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한 재원으로 추진되며, 내달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친 뒤 미국 측과 최종 협의 이후 진행된다. 투자 이후에는 매년 투자 현황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남동발전, AI로 ‘안전·효율’ 두 마리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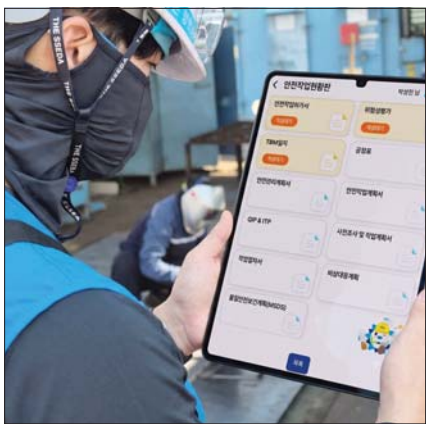
차세대 발전설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절차 통합해 단계 약 40% 줄여

한국남동발전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발전소 전환 및 현장 안전 관리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11개월간 공들여 추진해 온 발전AX(인공지능 전환)의 결실인 차세대 발전설비관리시스템 ‘GENi 2.0’을 오는 7월 31일 공식오픈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첫 도입 이후 하루 평균 2500명이 접속해온 기존 ‘GENi’는 남동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이용자의 82%가 현장 실무자와 협력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철저히 현장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대수술했다.

우선 복잡하고 반복적이던 업무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전체 업무 단계를 약 40%나 획기적으로 줄여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은 과도한 행정 피로에서 벗어나 본연의 안전관리와 정비 업무에 온전히



발전설비 관리시스템 현장 사용 모습. /남동발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발전소 현장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신설된 ‘안전 모드-ON’ 기능을 통해 기존에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출력·스캔해야 했던 143종의 현장 안전 서류를 시스템 내 전자서명 방식으로 100% 전환했다. 종이 없는(Paperless) 일터를 구현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단순 실수를 원천 차단하여 한층 촘촘하고 견고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도약을 이끄는 AI·

빅데이터 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기존 발전 데이터에 기상정보와 정비 이력 등을 AI로 결합·분석해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작업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를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로 구현해 발전소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발전은 이번 ‘GENi 2.0’에 집약된 압도적인 기술력과 높은 범용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사 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환경에 대비해 타 발전사까지 플랫폼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통합발전설비관리시스템 표준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GENi 2.0은 AI 기반 차세대 발전설비관리 표준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전 사업소와 협력사가 새로워진 시스템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발전 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고 싶은 경마공원”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한국마사회, 정책제안 공모전

한국마사회가 이른바 ‘모두의 말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기관 경영 및 말문화 확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상에서 느낀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사회의 사업·서비스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경마·승마 등 말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자신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다.

공모 주제는 ▲‘가고 싶은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국민의 일상 속 말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2개 부문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

다. 공모 기한은 오는 8월17일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자는 마사회의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국민체감도, 실현가능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1차 제안서 서면 심사를 거쳐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총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한국마사회장상과 도합 5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결과는 2차 심사가 예정된 9월12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마사회는 공모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상시적으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 소통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 전략 공유

‘2026 IAPH-KMI 포트 포럼’ 참석

부산항만공사가 디지털 전환 등 부산항의 미래항만 설계 관련해 대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홍보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IAPH-KMI 포트 포럼’에 참석해 부산항의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국제항만협회(IAPH)와 한

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행사로, ▲탈탄소화 ▲디지털화 ▲효율성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 각국의 항만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발표자로 나선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은 “부산항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화물가 시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부산항의 통합 물류정보플랫폼인 ‘체인포털’에서 제공하는 차량반출입 예약시스템(VBS), 환적운송시스템(TSS), 전자인수도증(e-slip), 환적모니터링 시스템(Port-i)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의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항만과의 데이터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항만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폭염 대응 과채류 수급안정 대책 시행

소비 활성화 등 12.4억 투입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하절기 과채류 수급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과채류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작물 생육관리(7억 4000만 원) ▲소비 활성화(3억 원) ▲출하 조절(2억 원) 등에 총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서 지난 2개월간 농작물 생육 관리를 위해 농가에 여름철 시설하우스 고온 피해 예방용 차광도포제를 공급했다. 오는 8월31일까지는 약제와 영양제 등 필수 농자재를 추가로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생육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토마토·애호박 등 주요 과채류를 최대 40% 이상 싼값에 판매하는 행사도 실시했다. 할인 행사는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주산지 출하조절 대책도 마련했다. 토마토와 애호박, 가지, 오이, 청양고추 등 주요 품목의 도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시를 이상 지속될 경우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에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또 가공용으로 전환 출하하는 농가에는 공급가의 10~15%를 보전해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이 여름철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정부와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전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숲속

100

총자리집

©Toshio IWAI / KASEI SHUPPAN

2026. 7. 3(금) ~ 8. 17(월)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교육감·학부모 “교부금 축소 안 된다”… 정부 개편안 반발

대한민국교육감협 공개 토론회
활용할 수 있는 자원 15% 수준
공교육 재정 줄면 사교육 부담 커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가 교부금 축소에 반대했다. 교부금의 약 85%가 사실상 고정성 경비로 쓰여 교육청이 정책이나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15%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일부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현진 기자

었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교부금 전체를 교육청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1%는 일선 학교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쓰인다. 이를 제외하면 교육청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사

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약 25%다. 여기에 교부금의 10% 인편인 학교 무상 급식비를 제외하면 실제 조정 가능한 자원은 약 15%만 남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화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지방교육재정의 축소와 재배분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되며 농산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도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교육 등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감축이 이주배경 학생과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로 구성돼 실제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학교 수는 2021년 1366곳에서

2025년 1387곳으로, 교원 수는 같은 기간 5만7954명에서 6만871명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83만8837명에서 75만6698명으로 감소했다.

조 전 실장은 “노후시설 개선과 과밀·과소 학교 문제, 이주배경·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학부모단체도 교부금 축소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냉난방비와 전기요금,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이 줄면 학급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먼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재정이 줄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이 줄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불광동에 31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불광동 359-1 일대 신축통합기획 확정
총 33만8000㎡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

서울 불광동 연신내 역과 은평뉴타운 사이 노후 주거지가 최고 29층 약 3100세대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축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대상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하고, 북한산·향림근린공원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이다. 고양·은평구를 연결하는 통일로·연서로를 끼고 지하철 3·6호선, GTX-A·E(예정)가 통과하는 연신내역 배

후 주거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게 강점이다. 반면 1960년대 형성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지가 많이 보행과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주민·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간담회·설명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축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축통합기획에 따라, 시는 구릉지형과 학교 일조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불광2동 미래를 여는 첫 주자로 학교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지는 지난 2월 신축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신축통합기획 수립 예정인 불광동 442·445 일대 개발에 대응해 마련된다. 3개 단지 모두 정비시 총 33만 8000㎡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최대 2단계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며 “이번 신축통합기획을 통해 불광동 359-1 일대가 교육·자연·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불광2동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초등 신규교사, 첫 전보 최대 2년 유예

특수교사는 3년 뒤 선택 가능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는 첫 정기 전보 시기를 최대 2년 늦출 수 있고, 특수학급이 1개뿐인 학교의 특수교사는 3년 근무 뒤 전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등교사에게 정기전보 주기 5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급을 1개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3년 이상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교사에게는 전보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뒤 처음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두

차례, 최대 2년간 전보를 미룰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수 특수학급 교사가 같은 학생과 학부모를 최대 5년간 담당하는 근무 특성과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2026년 8월 안내되며 2027년 3월 1일 자 인사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근무 여건에 맞춰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원자력연·SK하이닉스, 경주 양성자가속기 활용 협력

고에너지 입자빔 활용 연구 등 추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반도체 방사선 신뢰성 평가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경주시는 28일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준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주 양성자가속기와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를 활용해 반도체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양성자빔 공동 활용과 우주·대기방사선 환경을 모사한 반도체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고에너지 입자빔 활용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한다.

방사선 영향평가는 우주와 원전 등 방사선 환경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시험·검증하는 기술이다. 최근 AI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준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28일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반도체 방사선 신뢰성 연구센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 자율주행,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현재까지 1천200여 건의 연구과제와 3천700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전체 빔서비스의 약 40%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2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국제 수

준의 방사선 영향평가와 인증시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우주항공,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중심도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세종~공주 광역BRT 내년 1월 개통 ‘속도’

충청광역연합, 운영체계 등 확정

충청광역연합이 내년 1월 세종~공주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사업의 정상 개통을 목표로 운영체계와 연계 노선 등 주요 현안을 확정하며 개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8일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광역BR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와 면허 방식, 연계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단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6년 이내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과 세종시, 공주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운영협약을 체결해 기관별 역할과 비

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광역BRT 노선을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공주시내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백제큰디리를 경유하고, 제2급강교 개통 이후에는 교통 여건에 맞춰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BRT 운영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비 국비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현재 세종시 구간 81.5%, 공주시 구간 77.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8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충청=양대승 기자 zzica@



카카오게임즈, WWF에 3000만원 기부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에서 진행한 이용자 참여형 기부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WWF(세계자연기금)에 생물다양성 보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WWF 사무실에서 카카오게임즈 조정연 ESG·Value Enhancement실 실장과 WWF 이영준 보전사업본부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



더네이처홀딩스, 창덕궁 세계유산 사진전

더네이처홀딩스가 국가유산청과 손잡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사진전을 선보인다. 더네이처홀딩스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창덕궁 인절전 서행각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퍼럴 국가유산청 포토쿠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전은 '세계유산의 순간들: 시간에 시선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더네이처홀딩스



고려아연, 울주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고려아연 온산재련소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함께 울산 울주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대표 여름철 나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대한적십자사 울산 울주군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



BNK금융, 지역 맞춤형 상생사업 추진

BNK금융그룹이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우리 동네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BNK금융그룹은 2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상생금융 프로젝트' 및 '지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

인사 ◆화성시 ◇4급 승진 △정책기획관 신용선 ◇5급 승진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5급 전보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동탄구 동탄4동장 오수정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정부청사 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 신화영

부음 ▲장기식씨 별세, 장상태(대구MBC 기자)씨 부친상 = 29일, 모례아장례식장 103호, 발인 31일 오전 5시, 053-801-9999.

제네시스, 마릴린 먼로 100주년 영화 지원

매기 질렌할 연출·다코타 존슨 주연 혁신가적 삶과 도전정신 집중 조명 오는 9월 베니스 무대서 최초 공개

제네시스가 할리우드 스타 군단을 동원한 마릴린 먼로 헌정 영화 제작을 지원했다.

제네시스는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 '플래시 임팩트'의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마릴린 먼로의 혁신가적 면모를 지속 조명해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한 먼로의 삶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제네시스의 행보와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부터는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전시 '매니페스팅 마릴린'



마릴린 먼로 특별전 전시 이미지.

/제네시스

도 진행 중이다. 영화는 마릴린 먼로 재단 소유주인 어

센틱 브랜드 그룹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배우 겸 감독 매기 질렌할(Maggie G

한국타이어, 베트남서 브랜드 캠페인

10개 CGV서 전기차 타이어 광고 포몰러 E 영상으로 소비층 공략

한국타이어가 전기차 열풍이 부는 베트남에서 스크린을 통한 브랜드 각인에 나섰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베트남 7개 도시 CGV에서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구매력과 트렌드 민감도가 높은 소비층이 즐겨 찾는 CGV를 활용해 기획됐다.

캠페인 기간 중 한국타이어의 주요 비즈니스 거점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7개 도시 내 10개 CGV 극장에서 지난 4월 공개된 브랜드 영상 '포몰러 E 리



베트남 CGV서 '아이온' 광고 캠페인 전개 이미지.

/한국타이어

와인드'가 송출된다.

해당 영상은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몰러 E 월드 챔피언십'에서 모터브를 얻었다. 경기의 화려한 성과 대신 기술의 출발점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리와인드(Rewind)' 연출로, 압도적인 경기력 뒤에 타이어가 있었음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이승혁 기자

애경산업 '엄마의 선택', 올해 녹색상품 선정

전국 소비자 평가단이 친환경성 검증

애경산업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가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앞세워 소비자의 호평을 받았다.

애경산업은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가 '2026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올해의 녹색상품'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환경 개선 효과와

상품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전국 16개 소비자·환경 단체와 300여 명의 소비자 평가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엄마의 선택 베이킹소다'는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다용도 세정제로, 과일·채소 세척부터 주방·욕실 청소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등급의 원료를 사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생활 화학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한림대의료원, 강원권 뇌졸중 대응 강화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지역 맞춤형 의료를 개발한다. 특히 강원권역의 뇌졸중 대응 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림의료원은 최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와 함께 추진한 '강원권역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가 보건복지부 2026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손종희 교수(사진)이며 2026



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53억6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 연구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매칭 지원한다.

손종희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플랫폼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의료기관 임상실증을 통해 강원권역 지역완결형 뇌졸중 진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

VC협회, '그로우스랩' 1기 교육 본격 운영

투자유치·글로벌 진출 등 실무 교육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삼일PwC와 함께 '2026년 스케일업 팀스 그로우스랩(Growth Lab)' 제 1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29일 VC협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팀스·DCP(Deep tech Challenge Project)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공

동 기획·운영한다. 단순 강의를 넘어 실전 경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투자유치 ▲재무·회계 ▲거버넌스 ▲글로벌 진출▲M&A ▲IPO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해 올해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업 전문가 강의와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캐피탈협회가 삼일PwC와 진행하는 그로우스랩 1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VC협회

광주은행, 어르신 1400명에 삼계탕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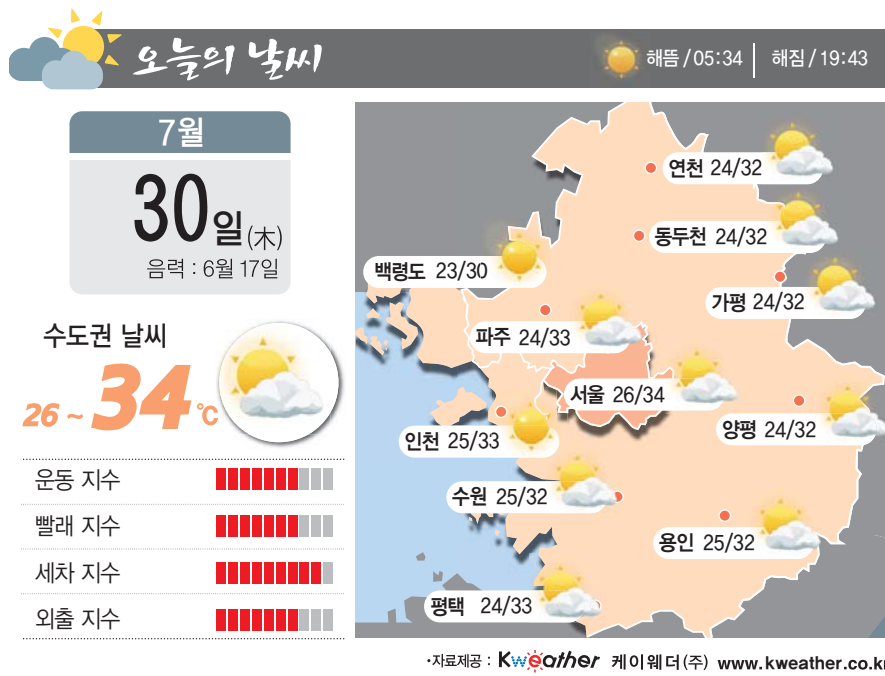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800만원 후원

광주은행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8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정일선 광주은행 은행장과 광주은행 임직원, 대학생 홍보대사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삼계탕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진

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호 전남광주통합특례시의회 부의장과 시의회 의원들도 함께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삼계탕을 대접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행사를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해당 후원금은 지역 어르신 1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수능 문해력, 청년 취업까지 결정한다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10대 시절 치렀던 수능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 다시 평가받는 현상이 심각하다. 대기업 인적성과 공무원 적성검사, 로스쿨 시험에 이르기까지 필기시험의 핵심은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해와 수학의 수리 추론 구조를 복제하고 있다. 이러한 동질성은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제공하지만 확장 시절 수능형 지문 독해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취업 시장에서 또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든다.

수능 국어 및 수학 시험과 성인 적성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정보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역량을 평가한다는 본질을 공유한다. 수능 국어 독서는 공기업의 의사소통 능력, 공무원 적성검사 언어논리, 로스쿨 시험 언어이해와 연결되어 전제 추론과 사례 적용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능 수학 역시 조건 해석과 최적해 도출 역량을 묻는 수리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식은 출제 인력풀의 구조적

통합에서 기인한다. 성인 적성시험을 출제하는 인력은 수능을 출제하는 국문학, 논리학, 수학교육과 교수진 및 연구원 집단과 동일하다. 출제 위원들이 공유하는 평가 기준이 같아 지문 구성과 오답 설계 방식이 습관적으로 복제된다.

수능 국어의 법률 및 경제 지문 문제와 대기업의 규정 해석 문제는 동일한 논리적 알고리즘을 공유한다. 수능 지문이 개념을 제시하고 예외 조건을 통해 책임 여부를 묻는 구조라면, 공기업 지문 역시 보상금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설정한 뒤 현장 사례에 적용하도록 만든다.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 훈련이 체화된 응시자는 이를 익숙한 구조적 도식으로 인지하여 순식간에 답을 찾아낸다.

수리 추론 영역도 마찬가지다. 수능 수학에서 제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불량품 예상 개수를 구하게 하는 문항은 성인 적성시험에서 공장 부품 불량률과 비용 데이터를 주고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변형된다. 제시된 데이터에서 조건 변수를 식별하고 수식화하여 이익과 손해를 산출하는 조건 가공 능력이 성인 시험 수리 영역의 정답률을 직접 결정한다.

시험 간의 지나친 동질성은 실제 채용 현장의 통계 데이터와 맞물려 청년 노동시장에 심각한 구조적 왜곡을 야기한다. 실제로 공

기업 수험생 대상 설문 결과 응시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적성시험 준비를 위해 수능 국어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고 답했다.

수능 점수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사교육 접근성 등 성장 환경의 문해력 노출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직업 적성 평가마저 수능과 동일한 논리 메커니즘을 채택함으로써 10대 시절의 계층적 환경적 격차가 20대 후반의 청년 취업 시장으로 그대로 이전되고 확대되어 청년 세대의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한다.

수능형 적성시험이 객관적이고 채용 비리를 막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검증 수단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공정성의 탈을 쓴 행정 편의주의적 정당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문 독해형 문항을 줄이고 실제 업무 현장의 갈등 상황이나 우선순위 설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비지문형 상황판단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판 승부식 필기시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실제 직무 데이터 기반 기획서 작성이나 데이터 가공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형 평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18세의 문해력 측정 시험이 28세의 직업 선택권까지 좌우하는 사회를 벗어나 취업 전선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직무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채용 평가 제도의 수술이 시급하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숫자 너머를 봐야 할 때



기 지 수 첩
차 현 정
(산업부)

‘역대 최대.’ 올해 반도체 업계를 관통하는 단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으로 또 한 번 분기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는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다. 차세대 HBM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 첨단 패키징 투자,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가 빠지지 않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HBM4 양산 확대와 장기공급계약(LTA), 신규 생산시설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는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경쟁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수요가 늘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하지만 AI 메모리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고객사와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품질 인증을 거쳐 양산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신규 팹과 첨단 패키징 시설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AI 시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차세대 AI 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이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은 단순한 호황의 결과가 아니다. 차세대 생산기술과 첨단 공정, 패키징 기술에 다시 투자해야 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다.

AI 시대에는 돈만 있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결국 그 돈을 얼마나 빠르게 기술과 생산능력으로 연결하느냐가 다음 승부를 결정한다.

사상 최대 실적은 분명 축하할 만한 성과다. 다만 AI 반도체 시대의 진짜 경쟁은 실적 발표가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보다 가장 빠르게 미래를 준비한 기업이 다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 (음 6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60년생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72년생 주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쁩니다. 84년생 오랜 친구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49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61년생 전화위복을 제대로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3년생 돈과 시간만 아깝게 낭비합니다. 85년생 사비하지 말고 먼저 화해하세요.



50년생 체력 관리에 더욱 힘쓸 때입니다. 62년생 소망이 지나치게 원대합니다. 74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86년생 욕심을 조금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51년생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고 보강함이 선행합니다. 63년생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마세요. 75년생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52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모두 환합니다. 64년생 동남방이 좋은 길입니다. 76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8년생 바라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53년생 이제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5년생 멀리 떠나는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77년생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9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내일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66년생 좋은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78년생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90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55년생 희망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아랫사람을 세심히 챙겨주세요. 79년생 이성과 즐거운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1년생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6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다음 기회를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80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다소 곤란합니다. 92년생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57년생 많은 이들과 즐겁게 어울리세요. 69년생 방향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81년생 사업의 흐름이 서서히 바뀔 시기입니다. 93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겠습니다.



58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70년생 주변의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82년생 철저히 준비하여 신중히 임하세요. 94년생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세요. 71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화해하세요. 83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95년생 진로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삶의 지식 명리학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싶어 하며 그 방법으로 지식을 쌓는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을 배우며,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 삶을 성장시키려 한다.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는 지식 중에는 명리학도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명리학을 점을 치거나 미래를 맞히는 학문으로 생각한다. 물론 운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명리학의 본질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며, 각자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는 지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이 수만 년 동안 축적한 인간 관찰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군가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누군가는 신중하고 차분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명리학은 이러한 개개인의 차이를 음양오행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한다. 사람마다 태어난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의 구조를 가지며, 그 기운이 성격과 행동,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는 마치 현대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심리학처럼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한다. 명리학은 개인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명리학은 어떤 성향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경우가 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

결란스도쿠110

종이 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7	6	2	9	8	2
2	8	6	8	9	1	7	9	2
2	9	7	9	8	2	1	8	6
9	8	2	2	1	7	8	6	9
8	6	1	9	2	9	8	2	7
9	7	2	8	8	6	2	1	9
1	9	8	2	2	9	6	7	8
7	2	8	6	9	8	2	9	1
6	2	9	1	7	8	9	2	8

8	2	7	9	6	8	1	9	2
6	9	8	9	1	2	2	8	7
9	2	1	8	7	2	8	9	6
7	1	2	8	9	6	8	2	9
9	8	6	2	8	1	7	2	9
2	8	9	7	2	9	6	1	8
8	9	9	1	2	7	2	6	8
1	6	8	2	8	9	7	2	9
2	7	2	6	9	8	9	8	1



편의점
길어지는 폭염에
얼음·생수 ‘볼티’
L1

metro®

Life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대미투자 1호로
L2



“30년 진심 담긴 하이볼... 한 잔으로 행복의 계기를”

인터뷰

카즈나리 마구치

도쿄 ‘락피시’ 오너 바텐더

도쿄 긴자 ‘락피시’ 바 오너 바텐더
얼음 없는 하이볼에 빠져 30년 외길
부드러운 산토리 가쿠빈만을 고집
꾸밈없는 맛에 탄산 더해 시너지↑

도쿄 긴자의 좁은 골목, 2002년 문을 연 이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을 밝힌 전설적인 바 ‘락피시(ROCK FISH)’. 그 곳의 오너 바텐더인 카즈나리 마구치(Kazunari Maguchi)가 산토리 글로벌 스파리츠의 초청으로 서울을 찾았다. 여의도 ‘키보 락앤롤’과 용산 ‘키보 타치노미’를 이끄는 남준영 셰프와의 특별한 협업을 앞두고 만난 그는 30년 넘게 산토리 가쿠빈과 함께 걸어온 하이볼 외길 인생의 온전한 궤도를 차분히 풀어놓았다.

마구치가 얼음 없는 하이볼, 이른바 ‘아이스리스 하이볼(Iceless Highball)’과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진 것은 20살 무렵 찾았던 ‘삼보아’에서였다. 당시 칵테일 붐을 타고 얼음과 시럽이 잔뜩 들어간 화려한 바 문화 속에서 오직 위스키와 탄산수만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던 그 모습은 청년 마구치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음이 녹아 맛이 희석될 일 없이, 가장 최상의 상태인 위스키를 끝까지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고수하는 아이스리스 하이볼의 미학은 명확하다. 첫 모금과 마지막 모금의 맛이 온전히 같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냉장고와 글라스, 위스키의 온도는 물론 탄산을 따르는 손길 하나까지 철저히 계산된다. 세상에 수많은 프리미엄 위스키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가 여전히 산토리 가쿠빈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숙성 연수가 너무 긴 위스



카즈나리 마구치 바텐더가 여의도 키보 락앤롤에서 아이스리스 하이볼을 소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키는 탄산과 부딪힐 때 고유의 결이 상쇄되지 만, 가쿠빈 특유의 부드럽고 꾸밈없는 활력은 탄산수와 만났을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 그 편안함 덕분에 락피시에는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는 단골들이 늘 복잡하다.

힘을 뺀 손끝에서 완성된 좋은 하이볼
달지 않아 한국 음식과도 궁합 최상
바 공간 지키며 손님에게 휴식 전해
세계 순회하며 한 잔의 진심 전하고파

좋은 하이볼을 만드는 마구치만의 기준은 다름 아닌 ‘힘을 빼는 것’이다. 위스키와 탄산수가 조용히 섞여 들어가는 과정에는 어떠한 과도한 힘도 필요 없다. 마지막에 살짝 엷은 레몬 껍질마저 부드럽고 가볍게 놓여질 뿐이다. 오랜 세월 카운터를 지켜온 그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공의 영역이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한국 요리와의 페어링이다. 시럽의 단맛이 강한 하이볼은 생선류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와 곁들이기 어렵지만, 플레인 탄산수로 만든 달지 않은 하이볼은 위스키의 나무향, 탄산수의 산도, 레몬 오일의 풍미가 어우러져 기름기와 산미가 있는 어떤 음식과도 훌륭한 궁합을 이룬다.

무더운 여름철, 그가 추천하는 안주 역시 이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이를 두드려 폰즈와 고추기름, 간장으로 가볍게 버무린 ‘다유 오이’나 제철 복숭아와 김치를 양념장과 함께 무쳐낸 ‘복숭아 김치 샐러드’는 청량한 아이스리스 하이볼의 맛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각국의 바를 누비며 게스트 바텐더로 활약해 온 그이지만, 락피시를 체인점으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은 품어본 적이 없다.

마구치는 도쿄 락피시 카운터 한켠에 20여년 전 가게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적혀 있는 문구가 있다고 했다. “이 한 잔이 행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지향점은 언제나 오직 바 카운터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 매일 직접 카운터에서 유일한 원동력은 가게의 마스터로서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묵묵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손님들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짧은 눈빛과 호흡만으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케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이유다.

마구치는 “하이볼은 손님과 바텐더 사이에 놓인 존재이자 그 공간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그는 그저 술을 만들어 낼 뿐이고, 손님들이 그 한 잔을 비우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볼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통의 언어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구치 바텐더. 오늘날 긴자의 카운터에서, 그리고 서울의 웰컴 스페이스에서 그가 건네는 힘을 뺀 부드러운 한 잔은 국경과 장르를 넘어 누구나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일상의 행복을 조용히 선물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미니 Q&A

카즈나리 마구치가 전하는
하이볼의 깊은 철학

-프리미엄 위스키 대신 숙성 연수가 짧은 ‘가쿠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숙성 연수가 긴 프리미엄 위스키는 오랫동안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탄산과 부딪힐 때 고유의 결이 상쇄되곤 한다. 그래서 상위 프리미엄 위스키는 스트레이트나 미즈와리, 언더룩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반면 숙성을 오래 거치지 않은 가쿠빈 특유의 활력(Vibrancy)은 탄산수와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

-매일 직접 바 카운터에서 원동력은 무엇이며, ‘바 자리’가 가진 특별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 자리는 주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잠깐의 눈빛과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락피시 역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도 카운터 자리가 비면 자리를 옮기는 손님들이 허다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세계 각국의 바를 순회하며 전하고 싶은 바텐더로서의 최종 비전은 무엇인가

“락피시를 체인점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오직 이 하이볼 한 잔의 진심이면 충분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만, 마실수록 음식과의 조화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의 미소는 모두 똑같다.”

“하이볼로 세상을 연결하고 싶다. 맛있어.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



도쿄 긴자 ‘락피시’에서 맛볼 수 있는 얼음 없는 하이볼. /락피시 인스타그램



▲마구치 바텐더와 남준영 셰프의 키보가 협업한 스페셜 팝업.



▲한국 펜싱 여자 에페,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사진 뉴시스
▲‘월드컵 우승’ 스페인 쿠쿠레아, ‘감동 얼굴 문신’ 공약 지켰다

▲프리시즌 명단 발표한 맨시티, ‘스타’ 홀란·로드리 없이 방한한다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日도미야스, EPL 펠리스서 입단테스트

▲이상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국가대표 지도자 출정식 개최
▲하키 주장 샌더스·축구 스타 루르트, “가장 큰 소원은 가정 꾸리기” 고백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

사전판매 | 26.07.28 ~ 26.08.03

512GB로 업그레이드 무료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입니다. 특정 시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 필요합니다. 사전 판매 기간 내 (2026.07.28 ~ 2026.08.03)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을 사전 예약하는 경우, 256GB 모델은 512GB 모델로 무료 업그레이드 됩니다. 갤럭시 Z 폴드8 | Z 폴드8 울트라 512GB를 사전 예약하는 경우 삼성닷컴 기준 1TB 업그레이드 금액의 50%가 할인되어, 자기 부담금 310,700원(부가세 포함)을 추가 결제하는 경우 갤럭시 Z 폴드8 | Z 폴드8 울트라 1TB를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 사전 판매 기간 이후에도 동일/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8 512GB, 갤럭시 Z 폴드8 | Z 폴드8 울트라 1TB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제 단말기는 삼성전자와 협의된 공식 판매처 외에는 사전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잘못된 입력한 정보로 인한 혜택 미제공은 당사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은 프로모션 대상이 아니며 해외 USIM/sIM 사용 시 프로모션 참여가 불가합니다. 구매처에 따라 취급 용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